

함평군-영산강사업단,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위해 '맞손'



업무협약 체결...가뭄 위기 극복 위한 선제적 대응 나서 약 2,199ha 농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가능할 것 기대

함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13일 "가뭄 장기화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군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김신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영산강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5공구) 함평군 구역 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 공사에 요청하고, 용수 공급에 소요되는 전력비,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는 군으로부터 농업용수 공급 요청 시 적극 협조하는 한편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수관로 등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시설물 조작법 등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영농기 전까지 함평, 순천, 영광, 대동, 영암 등 약 2,199ha의 농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군,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 선정

무안군은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등 5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특성화 사업은 특수상환지역 내 개발대상(188개소) 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무안군은 올해 5월 탄도를 대상지로 사업 신청을 했고 전국 15개소, 전남에서는 무안군과 여수시가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탄도 특성화사업은 총 4단계의 사업구조로 1단계에서는 마을자원 발굴 및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에서는 1~2개의 단위사업을 진

행하며 3단계는 마을계획 고도화와 단위사업을 확장해 최종 4단계에서는 3단계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사업의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무안군과 협약하여 주민 역량강화, 성과관리, PM단(현장관리단)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안의 유일한 유인도인 탄도를 살기 좋은 섬, 지속가능한 섬으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김두관 국회의원 초청' 영광군, 이장역량 강화 교육

영광군은 지난 12일,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김두관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이장단과 공무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영광군 이장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자인 김두관 국회의원은 고향인 경남 남해군 이어리 이장출신으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을 역임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꾸준히 강조해 온 도전의 아이콘으로 이번 강연을 통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군민의 행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이장님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이장의 신화와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공유



하며, 강연을 펼쳐 이장단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 성료 세계 섬 대표들, '퍼플섬 의정서' 채택하고 국제네트워크 구성키로



8~9일 신안군 자은도에서 개최된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이, 퍼플섬 투어를 끝으로 1박2일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신안군과 태평양관광기구(한국지사장 박재아),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가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섬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지혜를 알리고 △지속가

능한 관광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섬들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스페인, 사모아, 인도네시아, 그리스, 마셜 제도 등의 섬을 대표해 자은도를 찾은 포럼 참가자들은, 8일 '2022 퍼플섬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 섬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성' '지속가능 관광 모범사례 공유' '섬 기후변화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퍼플섬 의정서 실천과제로 제시된 네트워크 사무국 설치, 세계 섬 문화 포럼·전시·공연 연 1회 실시 등도 논의된다. 포럼 첫날에는 '섬문화 다양성' '지속가능 관광'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이어졌다. 포럼 이틀째인 9일 열린 섬문화 워크숍에서는 세계 섬 사이의 교류 역사, 신안 섬의 현실로 다가온 인구감소 해법 등이 제시됐다. 이 투어를 마지막으로 강연·워크숍·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박2일 채운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은 막을 내렸다. **신안=이덕주기자**

영암군, 과수(감) 정지전정 기술교육 실시

영암군은 지역특화작목인 대봉감과 단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과수(감) 정지전정 교육>을 8일부터 9일까지, 2일間に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도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일 이론교육에 이어 9일에는 참여 농업인의 감재배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정지전정은 고품질의 과일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과수재배의 기본인 수세관리를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결실관리와 과일품질 유지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